



달라스 교구

2025 희년

노약자나 환우, 봉성체 교
위한
희년 전대사 기도 책

2025년 희년의 주제는 “희망의 순례자들”입니다. 전쟁, 기후 변화, 경제적 어려움으로 많은 나라들이 고통받고 있는 이 시기에,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다가오는 이 한 해가 희망을 회복하고 새롭게 거듭나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하고 계십니다. 희년은 2024년 성탄 전야, 로마 성 베드로 대성전에서 거룩한 문을 여는 의식으로 시작되었으며, 2026년 주님 공현 대축일에 막을 내리게 됩니다.



희년은 "성년(聖年)"이라고도 불리며, 교회의 삶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해로서 현재는 25년마다 한 번씩 거행됩니다.

가장 최근의 일반 희년은 2000년에 있었으며, 2015년부터 2016년까지는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특별 희년인 “자비의 희년”을 선포하셨습니다.



**QR 코드를 스캔하셔서 달라스
과달루페 성모 주교좌 성당 성
지 해설이 있는
가상 순례에 참여해 보세요!
노약자나 환우, 봉성체 교우들
희년 동안
전대사 받을 수 있습니**

희년 동안 가정에 머무는 교우들도 전대사 받을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지만, 중대한 사유로 인해 직접 여러 성대한 전례나 순례, 신심 방문에 참여할 수 없는 신자들(특히 수도원에 거주하는 수녀나 수도자들, 노인, 병자, 수감자, 병원이나 요양시설 등에서 환자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봉사하는 이들)은, 동일한 조건 아래, 현장에 직접 참여하는 신자들과 영적으로 일치하여 (특히 교황님이나 교구장 주교님의 말씀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전달될 때), 아래의 기도를 가정이나 자신이 머무는 곳(예: 수도원 경당, 병원, 요양원, 교도소 등)에서 바치고, 자신의 고통이나 삶의 어려움을 봉헌함으로써 희년 전대사를 얻을 수 있습니다.

2024년 5월 13일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선포하신
2025년 희년 동안의 전대사 수여에 관한 교령

성호를 그으며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시작 기도: 시편 51:12-14

하느님, 깨끗한 마음을 제게 만들어 주시고 굳건한 영을 제 안에 새롭게 하소서. 당신 면전에서 저를 내치지 마시고 당신의 거룩한 영을 제게서 거두지 마소서. 당신 구원의 기쁨을 제게 돌려주시고 순종의 영으로 저를 받쳐주소서

희년 기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형제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믿음과 성령을 통하여 저희 마음에 부어 주신 불타는 사랑으로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리라는 복된 희망을 저희에게 다시 일깨워 주소서. 악의 세력이 패배하고 아버지의 영광이 영원히 드러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확신에 차 기다리며 온 인류와 우주가 떨쳐 일어나도록 아버지의 은총으로 저희가 복음의 씨를 뿌리는 성실한 일꾼이 되게 하소서. 희년의 은총이 희망의 순례자인 우리 안에서 천상 보화를 향한 갈망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우리 구원자이신 주님의 기쁨과 평화가 온 세상에 흘러넘치게 하소서. 영원히 복되신 하느님께서서는 세세 대대로 찬미와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사도 신경: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주님의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된 이를 저희가 용서 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마침기도: 카타리나 라부레 성녀께 드리는 기도 (병자와 노인의 수호성인): 주님, 당신의 종 성 카타리나 라부레를 우리에게 본보기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녀가 병약한 이들을 돌보며 수년 동안 주님을 향한 사랑을 실천한 삶을 저희도 본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성 카타리나 라부레 성녀여, 당신처럼 저도 제 일생 동안 변함없이 신실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소서. 하느님을 섬기는 일을 결코 지치지 않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